

월비스 한림법학원 31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31기 합격생입니다.

올해 운이 좋은 결과로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네요. 제 합격 수기는 184가지 합격방법 중 한 가지에 불과하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부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만 하시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초년차분들 혹은 불합격 통지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2019.5) 김기홍 교수님 행정법 기본강의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시험 날까지 길다면 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 수험생활을 하며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부분 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1. 실무 (여지훈 평가사님)

저는 다독 가능한 얇은 책, 꼼꼼한 설명, 성의 있는 질의응답, 체계적인 수업계획표를 보고 여지훈 평가사님 수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실무는 문제분석, 문제해설, 답안형식 등 강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강사님들의 스타일을 다 따라가기엔 공부범위가 너무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과 잘 맞는 한분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기본기의 중요성] ★★★

여지훈 평가사님 기본강의부터 스터디 파이널까지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기본강의를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탓에 패스 초급은 실강(19.7월)으로 기본강의는 인강으로 진도를 맞춰 같이 풀어갔습니다. 패스초급을 10회 이상 풀었고,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하며 항상 '시험문제는 어차피 처음 보는 문제일텐데..'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가 아는 기본기 안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스터디 문제는 어려워지고 불안감에 머리가 자꾸 백지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마다 패스 초급을 목차만 잡아가며 기본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고, 올해 시험 1번 문제에서 제가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층적인 문제분석]

기계적인 문제분석 방법이 아닌 그 문제를 왜 출제했는지 심층적인 문제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본 후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나 자주 틀리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계속 생각하며 문제를 다시 읽고 자료의 제시형태를 분석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자료가 나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고, 다른 강사님 문제를 풀어도 어렵지 않게 자료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답안형식의 중요성]

안정적인 답안을 위해 논리적인 목차흐름, 구체적인 내용, 시각적으로 읽기 편한 답안을 작성하려 노력했습니다. 실무는 과락률도 높고 주력과목으로 삼기 어려운 만큼 '같은 오답이라도 논리적인

목차흐름이라면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 있는 유형에서는 여러 형식을 비교해가며 평가사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제가 답안지에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잘 표현되었는지 답안지도 공유해가며 저만의 형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2. 이론 (최동진 평가사님, 어정민 평가사님)

이론을 2019.10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에겐 너무 어려운 과목이었고, 시험 직전까지 항상 시간이 부족해 100점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론은 질문이해, 의의암기, 서술연습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의의암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제에 집중하여 시간 안에 직접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글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장을 짧게 쓰고, 쉽게 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사님께 찾아가 다양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전 '서론'을 적는게 너무 오래 걸려서 점수가 큰 1번을 제외하고 2.3.4번에선 빼고 적는 걸 스터디에서 연습했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선 시간이 모자라 1번 문제 서론을 못 썼습니다만 합격에 문제없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글을 무리 없이 쓰시는 분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맞는 글쓰기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지치기 정리법 : 총론/각론]

총론은 기본서 한권으로 큰 체계를 잡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가지치기 형식으로 큰 주제별에서 작은 주제별로 안에 내용을 적는 방법이 가장 실력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간 안에 목차를 잡고 안에 내용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놓으면 출제자의 의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론도 총론과 방법은 동일하나 실무기준해설서를 다독하시길 바랍니다.

[답안첨삭의 중요성]

학원 스터디를 하다보면 답안첨삭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론이란 과목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아직은 많이 존재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점수를 받기 쉽지 않고, 스터디에서 그 부분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해야 안정적입니다. 본인이 스터디에서 시간 안에 작성한 답안을 꼭 다시 읽어보시고,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도 보고, 부족하다면 스터디원들과 답안공유, 평가사님 도움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3. 법규 (이현진 평가사님, 김기홍 교수님)

법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는 불가능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암기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법규는 배점을 조절하여 작성하는 센스도 필요로 하는 과목으로 그만큼 이해와 정리가 필요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A급, B급을 푼 치면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부하시고 C급, D급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논점파악의 우선]

아무리 완벽한 암기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논점을 찾지 못한다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논점파악을 위해 윤신애 평가사님 사례집, 이현진 평가사님 스터디 1-4기 목차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례집 활용방법>

① 그 주 스터디와 관련문제를 찾아 풀어본다. (평균 5문제정도) : 최소 3회독

사례집의 경우 일반 답안작성보다 많은 양이 적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30%만 내 것으로 만들어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스터디 논점은 반복되어 출제됩니다. 사례집에 논점별 문제를 찾아 문제를 익숙하게 만드세요. 스터디, 사례집 반복하다 보면 겹치는 문제가 많아 생각보다 회독수를 늘릴 수 있고, 문제가 익숙해지면 기본 목차 정도는 적을 수 있습니다.

② 이해한 내용대로 답안을 적어본다.

기본 목차를 적을 수 있다면 해당 논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한대로 답안지를 40점이든 20점이든 작성해보세요. 법률용어는 이해하고 암기하면 됩니다.

③ 정확한 암기

이해는 암기하기 위한 한 단계일 뿐입니다. 충분히 이해한 후 의의, 법률용어, 판례 등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있다면 용어를 바꿔 적는 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험문제는 내가 정확히 암기한 문제만 출제되지 않으며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4. 마무리

시험 당일 날 실무시간에 손이 달달 떨려 힘을 너무 줬는지 준비해간 잉크보다 많은 양을 사용했습니다. 이론까지 만년필을 사용해야겠다는 계획과 달리 펜을 시험도중 바꾸게 되었고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정답을 맞춰야겠다!”, “올해 꼭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할 땐 부담감 때문인지 학원 스터디에서든 혼자 문제를 풀 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멘탈 흔들리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잘해왔다. 오늘 아쉬움만 없이 나가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선 누가 정신을 차리고 답안을 쓰냐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내용이라면 한 줄이라도 더 쓰자 라는 생각으로, 모르는 내용이라면 성의 있게 쓰자 라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올해는 운이 좋게 제 차례가 되었지만, 내년에는 여러분의 차례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투정도 많고 욕심도 많았던 저에게 수험기간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신 언니 오빠들! 공부외에도 정신적 멘토가 되어주신 여지훈 평가사님, 최동진 평가사님, 어정민 평가사님, 이현진 평가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